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ategies in Elderly Households

박진영* · 김영숙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생활경영학과

Jin Yeong Park · Young Sook Kim
Dept. of Human Ecology, Kyungso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financial strategies in elderly households. The data of 4,577 households with all ages and 1255 elderly households is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00, 2003). The data were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mean-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k-mean cluster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lassified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types were Residual(44.3%), Financial Assets(24.0%), Informal Institutional(19.7%), Diversified Portfolio(7.6%), Real Estate(4.5%). Second,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of the financial strategies were relative, not absolute. Third, households(both elderly households and all households) that employed a diversified portfolio strategy had the greatest net wealth.

Key Words : Residual, Diversified Portfolio, Real Estate, Informal Institutional, Financial Assets

I. 서론

통계청(2005)의 주민등록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9%이며 이는 1985년의 6.8%에 비하면 1.9배 증가한 수치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3%였으나, 2005년에는 9.4%로 5년 사이에 29%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01).

부양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력의 감소와 부양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동반함으로써 노인인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정책에 관한 관심을 야기시키는 한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축소상황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에 대한 모색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고령화사회의 전이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대책과 개인적인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성영애, 양세정, 1997).

하지만 사회보장대책의 일종인 국민연금은 서구에 비해 도입시기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203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후의 소득보장대책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에 대한 개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적 대책은 자녀나 친척의 도움이었으나 산업화-핵가족화로 인해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노후에 대한 자발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통계청(2003)의 2002년 고령자 통계결과, 70.7%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보여 1998년의 89.9%보다 크게 감소하여 부모를 부양하려는 자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세태로 인해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려는 노인이 늘어나서 1998년에 자신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는 노인이 41.6%였으며, 2002년에는 4.7%가 더 늘어나서 46.3%였다.

IMF 관리체제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가계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가 변화되거나 자원의 양적인 면에서도 큰 감소

* Corresponding author: Jin Yeong Park
Tel: (051) 516-6540, Fax: (051) 611-2448
E-mail: pjy21kr@hanmail.net

를 경험하고 있어, 어떤 자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보다는 소유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정운영 외, 2002). 과학과 의료·보건기술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소득이 중단된 은퇴 후의 삶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인 가계에서는 이러한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에 있어서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여 위험을 관리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 및 자산시장의 동향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투자자산을 선택하여 환경의 위험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여부가 재무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재무관리의 성패여부가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나 경제구조에 관련된 소수의 논문만 있을 뿐, 경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행동인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접근법에 의해 재무전략개념을 도입하여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므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 현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령화사회에서 노인가계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목적이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을 유형화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투자이론이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투자이론의 출발은 Markowitz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이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선택이란 다양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선택이므로 포트폴리오 다양성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포트폴리오 다양성 이론

가계가 행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실제적인 자산비율 선택행동의 파악에는 포트폴리오접근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의 집합을 의미하는 자산군을 말한다(Bodie et al., 1995). 포트폴리오이론의 핵심은 개별자산을 여러 개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박정식, 1993). 가계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은 세대간이전 가설, 기간간효용극대화이론, 재고조정가설, 위험피라미드 모델, 행동주의생애주기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세대간 이전가설(Intergenerational Transfer Hypothesis)은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을 수정한 가설이다. 세대간 이전가설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Hubbard & Jupp, 1987; Kotlikoff & Summers, 1981)은 현 가계의 자본축적량의 80%정도가 가계저축이 아닌 상속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산축적(저축)의 동기를 다음세대를 위한 재산형성으로 보았다.

기간 간 효용극대화이론에서는, 개인과 가계는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간 간에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생애소득흐름이 비지속적일지라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차용을 한다고 하였다. 기간 간 효용극대화이론에 따르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의사결정은 소득, 이자율, 가격변동 및 가계선택의 함수로 표현된다(Bryant, 1990).

재고조정가설에 따르면 가계의 수요대상인 부채는 가계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가계는 자산과 부채 각각에 대해 일정한 회귀수준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특정형태의 부채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자신의 불균형상태와 타부채의 불균형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위험피라미드 모델은 위험/수익성 측면에서 가계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준다(김성민 외, 1999; Weagley & Gannon, 1991). 즉 축적된 안전한 가계 자산의 양이 많을수록 가계의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위험자산의 양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피라미드 모델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행동주의 생애주기가설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인간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확실성하에서의 합리적 기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행동주의 생애주기설에서는 가계가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를 더 선호하는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자산종류별로 스스로 유동성 제약의 정도에 차이를 부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계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 내에서 자산들의 한계소비성향을 달리하는 내적계정(mental account 즉 내적계정이란 사람들이 동일한 현상을 심리적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인지하고 이것이 또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을 현재소득계정, 현재자산계정, 미래소득계정 등으로 설정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한다고 보았다(Xiao & Olson, 1993).

위의 5가지 이론에 의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가계의 자산관리의 재무전략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가계의 자산관리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둘째는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된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자료의 제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여년 전부터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가계에 관한 연구는 세부적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간의 비교 연구(문숙제 외, 1996)와 노인가계를 연령, 취업유무, 가계유형별로 분류하여 집단 간 비교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가계의 자산관리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재정상태 및 경제구조분석(김순미, 1998; 양세정, 성영애, 2001; 정순희, 김현정, 2002; Schultz, 1992; Zhong et al., 1993), 생활수준 및 경제적 복지(김영숙, 2002; 문숙제, 여운경, 2001), 재무계획프로그램개발(문숙제, 김순미, 1997), 소득·지출·자산(김연정, 1998)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노인가계의 취업여부는 경제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가계를 취업(은퇴)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정순희, 김현정(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규모에 따른 재정상태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소득 및 1인당 지출을 분석하였고 자산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불평등성의 분석 개념이 아닌 충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하였다. 이윤금(1999)은 중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이용하여 기타가계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를 비교하였으

며, 그 결과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외식비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및 재무계획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김순미, 2004), 재무계획 및 재무상담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적으며, 은퇴 전·후의 계획, 은퇴계획의 필요성, 은퇴자금의 결정요인(Kapoor et al., 1996; Yuh & DeVaney, 1996)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애주기설(Ando & Modigliani, 1963)에 기초를 둔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소득, 은퇴시기의 결정 등과 같은 개인적 관심과 함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및 개인연금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Schultz, 1992).

사람들은 은퇴 후에 저축을 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은퇴 전에 저축을 통하여 은퇴자금을 준비하며(DeVaney, 1995),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약 70%정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은퇴 전에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확보하거나 사회보장 및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Yuh & DeVaney, 1996).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수반되는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의 저축 및 자산관리를 위해 재무상담 및 설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있다. Bernheim(1996)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가계가 은퇴이전의 소비수준을 은퇴기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저축율을 거의 3배만큼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Li(1996)는 1907년부터 1921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들은 그들의 은퇴에 재정적으로 잘 준비되어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은퇴계획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연구대상의 46%만이 은퇴기간동안 은퇴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Moore & Mitchell(1997)은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사용하여 은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자산의 충분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은퇴직전의 노인가계가 부가적인 저축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소비수준을 은퇴기에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가계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가계의 재무전략에 관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Daft(1998)는 “전략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절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활동 계획이며,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핵심역량과 시너지 효과가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Gunnarsson과 Wahlund(1994)는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구조화된 의사결정과 전문적인(well-informed) 포트폴리

오 결정을 의미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재무전략’이란 “부채와 신용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재무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집단들 중에서 한집단내에서 관측되는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박근주(1999)는 가계의 재무활동은 저축과 차용을 통한 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계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을 ‘가계재무전략’이라고 하였다.

가계재무전략에 관한 연구는 저축개념의 논의에서 출발하였으며, 하나의 용어로 치칭되더라도 저축의 의미는 강제저축, 자유재량저축, 잔여금저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Katona, 1975). (1) 강제 저축이란 보험금 납입, 부채상환 등과 같이 정해진 계약 의무에 따르는 저축이며 (2) 자유재량 저축이란 은행, 투자 및 대출기관 등의 계좌에 불입하거나, 미래대비를 위해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저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잔여금 저축이란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저축으로서 소득 중 소비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은행계좌의 잔액과 같은 것이다.

저축전략을 수행한 결과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현금, 유동성이 높은 단기적인 예금, 장기적인 투자, 강제적인 보험과 연금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축개념의 구분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전단계인 가계저축전략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준다(Mataiko & Stafford, 1985).

또 저축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볼 때 잔여금저축은 의사결정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재량저축은 저축할 때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가장 적극적인 저축전략이며, 강제저축은 보험, 연금, 차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한번은 의사결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의사결정 주의정도라는 측면에서 잔여금저축과 자유재량저축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이처럼 가계가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인 가계재무전략은 가계자산관리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축 의사결정에 대한 주의정도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Wahlund & Gunnarsson(1996, 1997)은 35개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된 포트폴리오 보유여부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가계재무전략을 유형화하였는데, 분석결과 잔여저축형(residual saving strategy), 강제저축형(contract saving strategy), 보장저축형(secure-future-strategy), 투기형(risk spreading strategy), 신중투자형(prudent investing strategy), 다양형(divergent strategy)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일정비율로 존재하는 가계재무전략유형은 소비자 재무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를 시도한 박근주(1999)는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의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42가구의 31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보유 여부를 군집 분석 하여 가계재무전략유형을 잔여저축형, 은행중심형, 비제도형, 근접기관형, 공격투자형 그리고 다양형으로 6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노인가계도 일반가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계특성과 경제환경에 따른 적용행동의 결과로 일정비율의 재무전략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은 전체가계의 재무전략유형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노인가계의 자산현황은 어떠하며, 전체가계의 자산현황과 비교했을 때 재무전략유형별로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에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 자료는 가구주의 연령이 골고루 분포된 4,577전체가구와 가구주의 연령분포가 60세 이상인 1,125 노인가구의 가구용자료 및 개인용자료가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가계재무전략: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운용방식을 말하며, 가계의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의 보유여부를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2) 자산현황: 자산현황의 분석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자산과 부채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구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 내용
자산	은행예금	은행요구불예금, 은행저축성예금, 기타 금융기관예금
	주식·채권·신탁	주식, 국채, 회사채,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불입총액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및 기타
	타지 않은 계	아직 타지 않은 계 불입총액
	빌려준 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금융자산	현금 등 기타 금융자산
	거주주택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현시세
	임차부동산	전세, 월세 등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
	임대부동산	전세, 월세 등 임대한 부동산의 현시세
부채	금융기관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부채	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 비금융기관부채
	빌린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또는 친척/친지에게 빌린 돈 등
	부어야 할 계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기타부채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거주주택 포함)

<표 2> 자산현황분석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분류

구분	구성요소의 내용
보증금	임차부동산
금융자산	은행예금+주식·채권·신탁+저축성보험+사회보험+타지 않은 계+빌려준 돈+기타 금융자산
총금융자산	보증금+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외 부동산+임대부동산
총자산	총금융자산+부동산
부채	금융기관부채+비금융기관부채+빌린 돈+부어야 할 계+기타부채+임대보증금
순자산	총자산-부채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자료는 SAS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통계분석으로서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평균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를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포트폴리오 구성요소의 보유여부를 측정하였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Ward방법에 의하여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군집의 수를 5개로 했을 경우 반부분(semi-partial) R^2 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군집의 수를 5개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전략 유형별 자산현황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2.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 비율

6차년도 자료(2003년)의 16개 자산과 부채 보유여부에 대한 군집분석결과, 가계재무전략은 <표 4>와 같이 유형화되었다.

군집 1은 조사대상 가구의 44.3%가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거주주택의 부동산, 임차부동산,

<표 3>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전체가계 N (%)	노인가계 N (%)
거주지역	서울	1,051(22.9)	238(21.2)
	광역시	1,407(30.6)	329(29.3)
	시군	2,134(46.4)	558(49.7)
가구원수	1명	555(12.1)	205(18.2)
	2명	812(17.7)	435(38.7)
	3명	982(21.4)	230(20.4)
	4명	1,587(34.6)	116(10.3)
	5명이상	656(14.3)	139(12.3)
가구주 학력	중졸이하	1,517(34.6)	794(70.6)
	고졸이하	1,591(36.4)	207(18.4)
	대졸이상	1,257(28.7)	124(11.0)
자가 소유여부	자가	2,753(60.0)	846(75.2)
	전세	1,129(24.6)	149(13.2)
	월세	427(9.3)	71(6.3)
	기타	283(6.2)	59(5.2)
주택종류	단독주택	1,681(36.6)	630(56.0)
	아파트	1,813(39.5)	293(26.0)
	연립주택	349(7.6)	79(7.0)
	다세대주택	465(10.1)	62(5.5)
	기타	284(6.2)	61(5.4)
근로소득자	있다	3,962(86.3)	715(63.6)
	없다	630(13.7)	410(36.4)
금융소득	있다	363(7.9)	107(9.5)
	없다	4,229(92.1)	1,018(90.5)
부동산소득	있다	377(8.2)	158(14.0)
	없다	4,215(91.8)	967(86.0)
사회보험	있다	336(7.3)	247(22.0)
	없다	4,256(92.7)	878(78.0)
이전소득	있다	1,453(31.6)	688(61.2)
	없다	3,139(68.4)	437(38.8)
보호대상	해당	113(7.8)	66(9.6)
	비해당	1,340(92.2)	622(90.4)
경제상태	매우여유가 있다	11(0.2)	4(0.4)
	여유가 있는 편이다	269(5.9)	60(5.3)
	보통이다	1,882(41.0)	426(37.9)
	조금 어려운 편이다	1,475(32.1)	363(32.3)
	매우 어렵다	946(20.6)	270(24.0)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2,107(45.9)	191(17.0)
	비임금근로자	1,142(24.9)	249(22.1)
	미취업	1,343(29.3)	685(60.9)
가구주 연령	39세이하	1,249(28.6)	60-64세 379(33.7)
	40-49세	1,235(28.3)	65-69세 298(26.5)
	50-59세	761(17.4)	70-74세 227(20.2)
	60세이상	1,125(25.7)	75세이상 221(19.6)

저축성보험, 타지않은 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기타금융자산의 보유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채에 있어서도 금융기관부채, 임대보증금, 부어야할 계의 보유비율이 전체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개 군집 중에서 ①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포트폴리오의 보유비율도 아주 낮으며 ④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은행예금(57%)과 사회보험(8%)의 보유비율이 약간 높

다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보유비율도 적고 부채의 보유비율도 적은 군집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저자산 저부채 집단을 잔여저축형이라 명명한 Wahlund & Gunnarsson(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군집 1을 잔여저축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조사대상 가계의 7.6%를 차지하여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주주택의 부동산, 임대부동산,

<표 4> 2003년도 전체가계의 재무전략의 유형화 (단위: %)

재무전략유형	잔여저축형	다양형	부동산형	비제도형	은행중심형	
군집번호*	1	2	3	4	5	
자산	은행예금	57	Ⓜ 100	Ⓛ 0	Ⓛ 0	Ⓜ 100
	주식·채권·신탁	3	Ⓜ 10	4	Ⓛ 2	6
	저축성보험	Ⓛ 2	16	9	9	Ⓜ 30
	사회보험	8	11	Ⓜ 12	Ⓛ 5	7
	타지 않은 계	Ⓛ 1	Ⓜ 4	3	3	Ⓜ 4
	빌려준 돈	Ⓛ 1	Ⓜ 5	3	2	4
	기타금융자산	Ⓛ 5	8	6	Ⓛ 5	Ⓜ 9
	거주주택외 부동산	Ⓛ 4	Ⓜ 71	61	14	33
	임차부동산	Ⓛ 10	Ⓜ 18	Ⓜ 18	16	16
부채	임대부동산	2	Ⓜ 99	98	Ⓛ 1	Ⓛ 1
	금융기관부채	Ⓛ 0	36	58	Ⓜ 100	60
	비금융기관부채	2	Ⓛ 1	Ⓜ 9	3	2
	빌린 돈	6	Ⓛ 3	12	Ⓜ 14	4
	부어야할 계	Ⓛ 0	2	Ⓜ 3	1	1
	기타부채	1	1	1	1	1
임대보증금	Ⓛ 0	83	Ⓜ 86	Ⓛ 0	Ⓛ 0	
빈도(N)total:4357	1928	331	196	857	1045	
백분율(%)total:100	44.3	7.6	4.5	19.7	24.0	

* SAS 분석결과 부여된 군집번호

Ⓜ: 5개의 유형 중 각 포트폴리오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

Ⓛ: 5개의 유형 중 각 포트폴리오의 보유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

임차부동산,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타지않은 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서 최고의 보유비율인 Ⓜ를 나타냈다. 무려 7개의 Ⓜ가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보험(11%)과 기타 금융자산(8%)의 보유비율은 Ⓜ에 근접하며, 저축성보험(16%)의 보유비율도 높은 편이다. 비금융기관부채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보유비율은 가장 낮아서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군집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자산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등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보유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다양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조사대상 가계의 4.5%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산으로는 사회보험과 임차부동산에서 가장 높은 보유비율인 Ⓜ를 나타냈으며, 임대부동산(98%)도 가장 높은 보유비율인 Ⓜ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거주주택외부동산(61%)의 보유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부채로는 비금융기관부채, 임대보증금, 부어야할 계의 보유비율이 Ⓜ로 나타났다. 은행예금의 보유비율은 가장 낮아서 Ⓛ을 나타냈고, 은행예금 대신에 저축성보험(9%)이나 기타금융자산(6%), 주식·채권·신탁(4%)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의 보유비율이 매우 높으며, 부동산 이외에는 다양한 자산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므로 이 유형을 부동산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조사대상 가계의 19.7%가 해당되어 세 번째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부채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아 Ⓜ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자산으로는 거주주택외 부동산(14%), 임차부동산(16%), 저축성보험(9%), 타지않은 계(3%)의 보유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과 임대부동산,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기타금융자산, 임대보증금의 보유비율은 가장 낮은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 군집은 전통적인 제도권의 자산인 은행예금이나 사회보험 등을 선호하지 않고 비제도권의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채의 보유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비제도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5는 조사대상 가구의 24.0%가 해당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행예금, 저축성보험, 타지않은 계, 기타금융자산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주식·채권·신탁(6%),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4%), 금융기관부채(60%)의 보유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대부동산, 임대보증금의 보유비율은 가장 낮은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군집은 은행예금이나 저축성보험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아서 제도권금융기관의 예금을 선호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부동산이나 임차부동산, 임대보증금의 보유비율은 낮아서 부동산이나 비제도권 부채는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행예금과 저축성보험에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를 나타내므로 이 유형을 은행중심형이라 명명하였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가 전체가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그리고 전체가계가 각 재무전략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분포는 <표 5>와 같다. 먼저 전체가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잔여저축형은 비노인가계가 67.3%, 노인가계가 32.7%를 차지하였다. 다양형은 비노인가계가 71.0%, 노인가계가 29.0% 차지하였으며, 부동산형은 비노인가계가 69.4%, 노인가계가 30.6%를 차지하였다. 비제도형에서는 비노인가계가 84.7%, 노인가계가 15.3%를 차지하였으며, 은행중심형에서는 비노인가계가 80.4%, 노인가계가 19.6%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비노인가계는 비제도형(84.7%) > 은행중심형(80.4%) > 다양형(71.0%) > 부동산형(69.4%) > 잔여저축형(67.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가계는 잔여저축형(32.7%) > 부동산형(30.6%) > 다양형(29.0%) > 은행중심형(19.6%) > 비제도형(15.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노인가계는 자산축적을 위해 높은 위험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수익률을 제공하는 비제도권의 자산과 부채를 많이 소유하는 비제도형(84.7%)과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려는 은행중심형(80.4%)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인가계는 잔여저축형(32.7%)과 부동산형(30.6%), 다양형(29.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비노인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인가계는 양극화된 자산관리유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다.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가계집단에서 잔여저축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생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노인가계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인가계의 복지측면에서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은행중심형의 비율(19.6%)이 낮다는 것은 안정적인 자산관리유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노인가계의 자산관리 유형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양형과 부동산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노인가계도 고자산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노인가계 전체 비율에서 본다면 극히 일부(8.5%, 5.3%)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이 형성기를 제외한 전 생활주기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기가계에서는 총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의 포트폴리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 연구(이은희, 최현자, 1998)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전체가계에 대한 비노인가계와 노인가계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각 가계의 상대적인 비율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유형에서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노인가계는 잔여저축형(40.1%) > 은행중심형(26.0%) > 비제도형(22.4%) > 다양형(7.3%) > 부동산형(4.2%)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인가계는 잔여저축형(56.2%) > 은행중심형(18.3%) > 비제도형(11.7%) > 다양형(8.5%) > 부동산형

<표 5>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 비율

군집번호* (재무전략유형)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전체가계
1 (잔여저축형)	N	1,297	631	1,928
	행백분율	67.3%	32.7%	100.0%
	열백분율	40.1%	56.2%	44.3%
2 (다양형)	N	235	96	331
	행백분율	71.0%	29.0%	100.0%
	열백분율	7.3%	8.5%	7.6%
3 (부동산형)	N	136	60	196
	행백분율	69.4%	30.6%	100.0%
	열백분율	4.2%	5.3%	4.5%
4 (비제도형)	N	726	131	857
	행백분율	84.7%	15.3%	100.0%
	열백분율	22.4%	11.7%	19.7%
5 (은행중심형)	N	840	205	1,045
	행백분율	80.4%	19.6%	100.0%
	열백분율	26.0%	18.3%	24.0%
total	N	3,234	1,123	4,357
	행백분율	74.2%	25.8%	100.0%
	열백분율	100.0%	100.0%	100.0%

Chi-Square = 122.9***

* SAS 분석결과 부여된 군집번호 *** p<.001

(5.3%)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가계의 경우, 잔여저축형(44.3%) > 은행중심형(24.0%) > 비제도형(19.7%) > 다양형(7.6%) > 부동산형(4.5%)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약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무전략유형의 순서는 똑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전략유형이 그 당시의 시장 또는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그리고 둘을 합한 전체가계 모두 환경에 대응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재무전략유형별 자산현황의 차이

1) 전체가계의 자산현황

전체가계의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6>. 전체가계의 총자산은 약 1억4천7백만원이며 부채는 약 2천3백만원 순자산은 약 1억2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재무전략유형별로 보유금액을 살펴보면, 잔여저축형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개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자산은 3번째로 많이 보유하여 총금융자산은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총자산 역시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과 부채는 유형 중에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 순자산은 약 9천2백만원으로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잔여저축형은 저자산-저부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형은 보증금이 약 1천6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였고, 금융자산은 약 4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총금융자산 역시 유형 중 가장 많았고, 부동산도 약 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자산도 약 4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는 약 7천1백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순자산 역시 약 3억4천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따라서 다양형은 고자산-고부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형은 보증금이 약 2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은 약 9백만원으로 4번째로 많았다. 총금융자산은 약 3천1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부동산은 약 2억4천7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으며, 총자산 역시 약 2억7천6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다. 부채는 약 9천7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순자산은 약 1억7천8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부동산형은 고부채-고부동산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제도형은 보증금이 약 1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으며, 금융자산도 약 2백5십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다. 총금융자산 역시 약 1천7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

<표 6> 전체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자산현황의 차이검증 (단위: 만원)

구분	유형	전체	잔여저축형	다양형	부동산형	비제도형	은행중심형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증금		1562	1512	1602	2224	1423	1628	2.380*
	D	3534	3050	4267	5896	3627	3430	
금융자산		1607	1308	4432	884	247	2563	68.040***
	D	4685	3719	7173	5054	1932	6110	
총금융자산		3189	2839	6046	3116	1671	4215	44.748***
	D	5978	4957	8537	7725	4159	7072	
부동산		11461	6396	34894	24666	7392	14271	182.670***
	D	21541	11626	39085	21541	13284	26500	
총자산		14741	9378	41211	27598	9139	18404	189.963***
	D	23553	13075	43009	22400	13714	28712	
부채		2253	162	7054	9667	3825	1945	362.406***
	D	5261	842	9918	9550	5302	3943	
순자산		12452	9217	34010	17812	5302	16416	134.461***
	D	22241	13105	39222	20336	12841	28696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장 적었으며, 부동산은 약 7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4번째로 많았다. 총자산은 약 9천1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고, 부채는 약 3천8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순자산은 약 5천3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다. 따라서 비제도형은 자산에 비해 부채의 비중이 높은 저자산-고부채형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은행중심형은 보증금이 약 1천6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고, 금융자산은 약 2천6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다. 총금융자산은 약 4천2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고, 부동산은 약 1억4천3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총자산은 약 1억8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고, 부채는 유형 중 4번째로 많았다. 순자산은 약 1억6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은행중심형은 다양형 다음으로 총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부채-고금융자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자산별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 보증금은 부동산형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은 다양형 > 은행중심형 > 잔여저축형, 부동산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총금융자산은 다양형 > 은행중심형 > 부동산형, 잔여저축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은 다양형 > 부동산형 > 은행중심형 > 비제도

형, 잔여저축형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총자산은 다양형 > 부동산형 > 은행중심형 > 잔여저축형,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부채는 부동산형 > 다양형 > 비제도형 > 은행중심형 > 잔여저축형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다양형 > 부동산형, 은행중심형 > 잔여저축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재무전략유형별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르며,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다양형의 순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가계의 자산현황

노인가계의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7>.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총자산은 약 1억4천5백만원, 부채는 약 1천5백만원, 순자산은 약 1억2천9백만원으로 나타나서 전체가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재무전략유형별로 보유금액을 살펴보면, 잔여저축형의 경우에 보증금은 5개 유형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자산은 4번째로 많이 보유하여 총금융자산 역시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과 총

<표 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자산현황의 차이검증

(단위: 만원)

구분	유형	전체	잔여저축형	다양형	부동산형	비제도형	은행중심형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증금		722	782	562	725	549	724	0.473
	D	2123	1938	2374	2224	1477	2782	
금융자산		1560	1172	4481	1483	144	2321	16.708***
	D	4519	3637	7477	6908	594	5035	
총금융자산		2288	1953	5043	2208	695	3060	12.163***
	D	5157	4124	7872	7105	1586	6532	
부동산		12078	7354	31023	21369	7158	18149	62.412***
	D	17342	10268	26954	15267	7801	23818	
총자산		14468	9428	36056	23827	7831	21180	62.617***
	D	19394	11703	31403	16956	7481	25713	
부채		1496	123	5177	7732	3415	917	109.601***
	D	4127	758	8509	8014	3625	2103	
순자산		12935	9298	30714	15752	4370	20195	47.639***
	D	18531	11719	29675	16028	6997	25570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산 역시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채는 유형 중에서 가장 적게 보유하였다. 순자산은 약 9천3백만원으로 유형 중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잔여저축형은 저자산-저부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형은 보증금이 약 5백6십만원으로 유형 중 4번째였고, 금융자산은 약 4천5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총금융자산 역시 유형 중 가장 많았고, 부동산도 약 3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자산도 약 3억6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는 약 5천2백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순자산 역시 약 3억1천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따라서 다양형은 고자산-고부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형은 보증금이 약 7백3십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금융자산은 약 1천5백만원으로 3번째로 많았다. 총금융자산은 약 2천2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부동산은 약 2억1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으며, 총자산 역시 약 2억3천8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다. 부채는 약 7천7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순자산은 약 1억5천8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부동산형은 고부채-고부동산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제도형은 보증금이 약 5백5십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으며, 금융자산도 1백4십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다. 총금융자산 역시 약 7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으며, 부동산도 약 7천2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다. 총자산 역시 약 7천8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고, 부채는 약 3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순자산은 약 4천4백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었다. 따라서 비제도형은 자산에 비해 부채의 비중이 높은 저자산-고부채형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은행중심형은 보증금이 약 7백2십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고, 금융자산은 약 2천3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다. 총금융자산은 약 3천1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고, 부동산은 약 1억8천1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다. 총자산은 약 2억1천2백만원으로 유형 중 3번째로 많았고, 부채는 유형 중 4번째로 많았다. 순자산은 약 2억2백만원으로 유형 중 2번째로 많았다. 은행중심형은 다양형 다음으로 총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부채-고금융자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자산별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 보증금은 재무전략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은 다양형 > 은행중심형, 부동산형 > 잔여저축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총금융자산도 다양형 > 은행중심형, 부동산형 > 잔여

저축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은 다양형 > 부동산형, 은행중심형 > 잔여저축형,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총자산은 다양형 > 부동산형, 은행중심형 > 잔여저축형,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부채는 부동산형 > 다양형 > 비제도형 > 은행중심형, 잔여저축형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다양형 > 은행중심형, 부동산형 > 잔여저축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노인가계 역시 재무전략유형별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다르며, 전체가계와 유사한 비율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다양형의 순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산현황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전체가계와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잔여저축형은 자산수준도 낮고 부채수준도 낮으므로 저자산-저부채형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형은 여러 가지 자산을 골고루 많이 소유하므로 고자산-분산투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형은 부채수준이 가장 높으며, 다양형 다음으로 자산수준이 높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므로 고자산-고부채-고부동산형집단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제도형은 자산이 적으면서 자산에 비해 부채의 비중이 높은 저자산-고부채형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은행중심형은 자산수준이 비교적 높고, 부채수준이 낮으며, 다양형 다음으로 총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자산-저부채-고금융자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2003년)를 사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골고루 분포된 4,577전체가구와 가구주의 연령분포가 60세 이상인 1,125노인가구의 가구용 자료 및 개인용자료를 대상으로, 첫째,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살펴봄과 둘째, 노인가계와 전체가계의 자산현황 및 재무전략유형별 자산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재무전략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입각하여 재무전략유형을 실증적으로 분류한 본 논문은 노인가계의 재무계획 및 설계 또는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노인가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16개 자산과 부채의 보유 여부를 군집 분석한 결과, 잔여저축형, 다양형, 부동산형, 비제도형, 은행중심형의 5가지 재무전략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마다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재무계획·설계·교육 시에 재무전략유형분류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모든 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해진 자산운용방법이나 전략이 아닌 해당 가계의 재무전략 유형에 적합한 재무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나은 재무전략의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의 분포비율은 전체가계와 비노인가계에 비해 잔여저축형과 다양형, 부동산형의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전체가계 모두 주어진 경제환경하에서 재무전략의 선택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가계가 그동안의 생애주기를 거쳐 오면서 쌓은 자산과 부채선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노인가계나 전체가계에서와 같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노인가계의 자산관리나 재무상담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져 자산의 선택이나 금융상품의 선정 시에 경제환경에 적절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가계집단에서 잔여저축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생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노인가계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인가계의 복지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은행중심형의 비율이 낮고 고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다양형과 부동산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노인가계를 위한 안전한 자산관리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가계의 자산현황은 각각의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는 다양형의 경우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산에 비해 부채의 비중이 높았던 비제도형의 경우에 가장 적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가계의 재무설계·교육·상담 시에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무전략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비제도형이 저자산가계로 나타난 결과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채에 있었던 만큼 부채의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체가계의 경우도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유형과 가장 적게 보유하는 유형이 노인가계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

하므로 노인가계와 전체가계의 자산현황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체가계와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에 관한 설계·상담·교육의 내용은 동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제도형과 같은 저자산계층의 경우 분산투자의 수익성을 알고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담감이나 세율감면과 같은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와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내어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재무관리의 성과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한 재무전략이 전개되는 경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따라 상황 의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에 의하여 재무전략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을 유형화 한 본 연구는 가계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행위를 분석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무전략의 성과가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각 재무전략유형별로 경제환경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2003년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된 분석을 위하여 패널자료의 시계열이 구성되는 시점에서 종단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잔여저축형, 다양형, 부동산형, 비제도형, 은행중심형

참 고 문 헌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순미(2004) 도시가구의 연금에 관한 연구-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11), 205-222.
- 김성민, 길재욱, 김현수(1999) 생활재무관리. 경문사.
- 김영전(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김영숙(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 일반가계, 일반노인 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3),

- 95-119.
- 문숙재,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문숙재, 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소비자학연구*, 12(1), 115-131.
- 박근주(1999)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식(1993) 현대재무관리. 서울, 다산출판사.
- 성영애,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8.
-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73-86.
- 이은희, 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 정순희, 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정운영, 황덕순, 홍은실(2002)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 통계청(2001)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 자료출처 <http://www.nso.go.kr>.
- 통계청(2005)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자료출처 <http://www.nso.go.kr>.
- Ando, A,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s: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 Bernheim, BD(1996) The Merrill Lynch Baby Boom Retirement Index; Update 96. Stanford University, Merrill Lynch.
- Bodie, Z, Kane, A, Marcus, AJ(1995) *Essentials of Investments* (2nd ed.). Homewood, IL: Irwin.
- Bryant, W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ft, RL(1998) *Management* (3rd ed.). Dryden.
- DeVaney, SA(1995) Retirement Preparation of Older and Younger Baby Boomer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6, 25-33.
- Gunnarsson, J, Wahlund, R(1994)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They Do Exist? Paper Presented at the IAREP/SABE Conference, Rotterdam, July, 10-13.
- Hubbard, G, Jupp, KL(1987) Social Security and Individual Welfare : Precautionary Saving, Borrowing Constraints, and the Payroll Tax.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7(4), 630-643.
- Kapoor, JR, Dlabay, LR, Hughes, RJ(1996) *Personal Finance* (4th ed.). II: Irwin.
- Katona, G(1975) *Psychological Economics*. New York : Elsevier.
- Kotlikoff, L, J, Summers, L, H(1981)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706-732.
- Li, JP(1996) Intended Retirement and Wealth Adequ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Matatko, J, Stafford, D(1985) *Key Developments in Personal Finance*. Oxford and New York, Basil Blackell Inc.
- Moore, JF, Mitchell, OS(1997) Projected Retirement Wealth and Savings Adequacy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98-1.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Schultz, JH(1992) *The Economics of Aging*. Westport, CT: Auburn ouse.
- Wahlund, R, Gunnarsson, J(1996) Mental Discounting and Financial Strategies. *Journal Economic Psychology*, 17, 709-730.
- Wahlund, R, Gunnarsson, J(1997)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in Swede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201-233.
- Weagley, RO, Gannon C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2, 131-154.
- Xiao, JJ, Olson, GI(1993) Mental Accounting and Saving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1), 92-109.
- Yuh, Y, DeVaney, SA(1996) Determinants of Couple's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fund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7, 31-39.
- Zhong, LX, Titus, PM, Johnson, DP(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 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s of ACCI*, 74-81.

(2006. 08. 28 접수; 2006. 11. 24 채택)